

[문제 1~2]

<제시문 1>

- 한국어 번역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우화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사라미아라는 고대 도시에서 온 남자가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춰서 그를 도왔다. 그는 남이 자신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황금률, 즉 행동의 기본 원리를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황금률은 일상생활에서는 도전받고 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신 사람들은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린 뒤, 빠르게 지나쳐 간다. 이를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사회심리학자 Darley와 Latané은 목격자가 많으면 많아질 수록 한 명의 목격자가 느끼는 책임감은 떨어진다는 역설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누군가 도울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험 참여자들을 인터뷰해서 Darley와 Latané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 방관자는 동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관자들에게 위험에 빠진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요청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선한 사마리아인” 원칙을 고안해 냈다. 쉽게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원칙은 적어도 위험에 처한 개인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강제화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는 제일 끔찍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제시문1>에서 현대인들은 방관자 효과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원칙은 이런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제시문 2>

<제시문 2>의 (가)에서는 국제 사회의 외면 아래 시리아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난민들이 죽음과 절망에 몰린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 (나)에서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선진국들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개발도상국들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제시문 3>

<제시문 3>은 날짐승을 위해 까치밥을 남겨놓거나 모르는 길손을 위해 길보시를 남겨놓는 것과 같은 행위가 후일 나에게도 따듯한 손길이 되어 돌아올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이라는 정신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3]

[문제 3]과 [문제 4]를 묻기 위하여 <제시문 4>에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 실린 「전론 1」의 지문을 <제시문 5>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로는 ‘소득과 암 발생의 관계(남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4대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따른 가계부담 변화 예상(2013년 기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1]로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및 가계직접부담 비율(2012년 기준)’을, [표 2]로 ‘2015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제시하였다.

[문제 3]은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제시문 4>를 통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여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을 하는 국가(임금)가 백성의 재산을 균제케 하여 다 잘살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 반면에 <제시문 5>를 통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 4]

[문제 4]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확대 정책>인 “사망 원인 순위가 1~3위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과 희귀성 난치병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2013년부터 확대하고자 한다.”를 제시하고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그림 1], [그림 2], [표 1]을 활용하여 추론하고, [표 2]를 활용하여 이 정책에 대한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입장을 대비하여 서술하도록 하였다.